

[전후 70 년 시민 선언 & 긴급 요청] 찬동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전쟁이 마친지 70 년, 한일 조약 50 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고비를 맞이하여, 아베(安倍)수상은 8 월 15 일을 향해 전후 70 년 담화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1995 년 무라야마(村山)담화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과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부터의 사과]를 답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표되는 담화에는 [사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표현을 담화에 포함시킬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게다가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식색을 희석시켜 수상의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나라가 행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부터의 사과와 배상을 할 것, 또 이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계승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후 70 년 시민 선언]을 발표하여, 동시에 아베 수상에게 긴급 요청을 행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후 70 년 시민 선언 & 긴급 요청]에 대한 찬동자들을 모집합니다. 취지에 찬동 해 주실 분들은, 꼭 찬동을 부탁드립니다.

호소인 명단(ㄱ~ㄴ순서)

가토 쓰요시(加藤剛, 일본 저널리스트 회의 · 토카이(東海)사무국장),가와무라 지레이(川村治令, 아이치현 역사교육자 협의회), 간다 히로시(神田浩史, 센교 · 타루이(泉京 · 垂井)이사), 고이데 유타카(小出裕, 일조협회 아이치현 연합회 사무국장), 기마타 쇼이치(木俣昭一, 국철노조 나고야 지방본부 집행위원장), 기무라 나오키(木村直樹, 전쟁과 평화 연구회), 기시노 도시히코(岸野俊彦, 나고야 예술대학교 교수), 나카무라 노리코(中村紀子, 나고야 미츠비시 ·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 대표), 노마 미키코(野間美喜子, 변호사), 노무라 기요시(野村潔, 성공회(聖公会)사제(司祭)), 니시 히데나리(西秀成, 아이치현사 · 조사 집필 위원), 니시이 가즈히로(西井 和裕, 나고야 NGO 센터), 다카기 요오타로(高木庸太郎, 나고야 역사과학 연구회 회원), [건국 기념일 불승인]2.11 집회 사무국),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 미츠비시 ·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나고야 공업대학교 명예 교수), 모리 겐이치(森賢一, 아시아 · 자원봉사 · 네트워크 토카이(東海) 간사), 사카키 다쓰오(榊達雄, 나고야 대학교 명예 교수), 사토 아키오(佐藤明夫, 항다(半田)공습과 전쟁을 기록하는 모임 대표), 스기우라 가즈타카(杉浦一孝, 나고야 대학교 명예 교수), 시마 시즈코(島 しづ子, 나고야 호리카와(堀川)전도소 목사), 안마싱(安間慎, 평화를 원하며 전쟁에 반대하는 아이치현 전몰자 유족들 모임 대표 간사), 야마모토 미하기(山本みはぎ, 전쟁 반대 네트워크), 야스카와 쥬노스케(安川寿之輔, 싸우지 않은

병사 시민의 모임 부대표이사),야스하라 가쓰히코(安原勝彦,일본 유라시아 협회 아이치현 연합회 이사장),오오니시 고로(大西五郎, 일본 저널리스트 회의· 토카이(東海)대표), 오오니시 유타카(大西豊, 사사지마(笹島) 일고 노동조합 집행 위원장), 온다 아키히코(恩田明彦,아이치현 원수폭 피해자들 모임 이사장),우키하 마사치카(浮葉正親, 나고야대학교 교수),우치카와 요시가즈(内河恵一,변호사),유이 시게루(由井滋,카톨릭 사제),이소가이 지로오(磯貝治良, [한국 병합 100 년] 공동행동 실행위원회 대표),이시카와 유우키치(石川勇吉, 신슈 오오타니파(真宗大谷派) 호우온지(報恩寺) 주지), 이시카와 켄사쿠(石川賢作, 중일 우호협회 아이치현 연합회 회장),이와즈키 코지(岩月浩二, 나고야 미츠비시·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사무국장),이와타 기쿠지(岩田菊二, 토카이(東海)민중센터),이케즈미 요시노리 (池住義憲,전 대학교원),이토 야스코(伊藤康子, 아이치 여성사 연구회 회원),이토 다카지(伊藤孝司, 자유 사진가),지카모리 야스히코(近森泰彦,유니온과 연대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하세가와 가즈히로(長谷川一裕,변호사),하야카와 죠오타이(早川静泰,일본베트남 우호협회 아이치현 연합회 사무국장), 후지이 가쓰히코(藤井克彦,반빈곤 운동),히구치 고오조오(樋口浩造,아이치 현립대학교 교수), 히로세 쓰토무(廣瀬務, 신슈 오오타니파(真宗大谷派)스님)

【연락처】(〒)470-0131 愛知県日進市岩崎町竹ノ山 149-549 池住気付

(우)470-0131 아이치현 닛신시 이와사키초 다케노야마 149-549 이케즈미방
[전후 70 년 시민 선언·아이치]사무국

전화/Fax: 0561-73-3423

메일: ikezumi@mtb.biglobe.ne.jp

HP <http://70sengen.iinaa.net/>

〈전후 70 년 시민 선언 & 긴급 요청〉

올바른 역사 인식에 의한 성심 성의의

반성·사과·배상은 화해와 우호의 주춧돌입니다.

전후 70 년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전쟁의 사실과 마주 서서, 올바른 역사 인식에 의한 반성과 사과 및 해야 할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해 왔을까요.

아베 신조 수상은, 오는 8 월 15 일, 전후 70 년 담화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담화 내용은 현재, 아베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유식자 간담회 [21 세기 구상 간담회]에서 의논이 진행중입니다. 간담회 니시무로 타이조(西室泰三) 단장은, 전쟁 책임에 대해 [담화 안에서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 아베 수상도 4 월말 미국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전후 70 년에 관해 연설했지만, 사과와 의사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995 년 8 월 무라야마 담화 [전후 50 주년 종전기념일에 즈음해서]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시기에 [국책을 잘못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준]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절한 반성] 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를 명확하게 표명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그 후 모든 정권들이 인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 일본 방문과 일한 파트너십 선언(1998 년 10 월), 코이즈미(小泉)수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문과 조일 평양 선언 (2002 년 9 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의 코이즈미 수상 연설 (2005 년 4 월), [전미 패튼·코레히드르 방위병의 모임]에서의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주미대사의 사과 발언(2008 년 12 월, 2009 년 2 월), 한국 병합 100 주년의 간 나오토(菅直人)수상 담화(2010 년 8 월)등으로 이어져, 아시아 여러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할 주춧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올해초부터, 무라야마 담화나 1993 년 고노(河野)담화를 [전체적으로 인계한다]고 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등 양담화의 핵심 부분을 포함시킬 것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인식(두가지 가해)

근대 일본은 일방적인 류큐(琉球)처분을 거쳐, 청일전쟁후 대만을 식민지 지배하에 두고, 그 후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일관한 팽창주의적 정책에 의해 남양 군도 또 중국 동북부(만주)로 실질적 지배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1931~1945 년 사이의 15 년전쟁만이라도, 일본은 2000 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전투에 의한 살해 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나 강간, 강제 노동이나 식량 강탈을, 침략한 각지에서 행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군은 삼광 작전(다 불태워 , 다 죽이고 , 다 빼앗는다)을 실시하는등, [일본 도깨비]라고 불리워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상징이 난징 대학살이며, 각지에 남겨진 [만인갱]입니다.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주권 침해, 강제 점령,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강제 노동, 문화재의 약탈, 창신개명과 일어 강제등, 수많은 가해의 역사를 새겨 왔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범한 [첫째 가해]입니다.

패전후, 동서냉전 속에서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여, 대립할 한편을 맡았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끼리 서로 싸운 한국 전쟁이라는 비참한 전후를 겪었습니다. 그 책임의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습니다. 또 일본은 조선의 [특수]에 의하여 전후경제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1965 년의 한일조약 때, 한국만을 한반도에 존재할 [유일 합법정부]라고 해서, 남북분단 고정화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양체결국 및 그 국민들(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 및 이익(생략)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생략)완전 및 최종적

으로 해결된 것이 될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식민지 지배하에 일어난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배상을 일관해서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전후 일관해서 적대시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2002 년 9 월에 코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국방 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이에 발표된 일조 평양선언은 국교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납치 문제등을 구실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여러나라들의 전쟁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중 공동성명이나 2 개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해결완료라고 하여,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의 결정을 거쳐 시작한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몇개 기업과는 화해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아무런 책임도 지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 년 12 월 아베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자존 자위의 정의로운 전쟁](성전)이라고 미화하여, A 급 전범을 [영령]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참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가해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고, 방치를 계속할 것은, 전후 일본이 범하고 있는 [둘째 가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시민의 역사 인식입니다.

평화에 대처할 결의와 긴급 요청

전후 일본은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 도조 히데키(東条英機)를 비롯한 일부 군국 주의자(A 급전범)들이 책임진다는 형식으로 외교적 결착을 보았지만, 최고 책임자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직접 참전했던 일반 병사를 포함한, 한사람 한사람의 전쟁 책임도 추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사이의 심각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배상을 통해 신뢰 회복의 행동을 일으킬 일입니다. 일본이 1945 년의 패전까지 범한 [첫째 가해]에 대한 [전쟁 책임], 그리고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하고 있는 [둘째 가해]에 대한 [전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예로의 대처란, 올바른 역사 인식과 그에 의한 진심으로의 반성,사과,배상을 행할 일입니다. 남의 발을 밟은 일은 잊혀지기 쉽지만, 밟힌 측은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가져다 준 역사와 성실하게 마주서서, 과거의 청산을 다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더 한층 평화예로의 대처를 실천해 나갈 결의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 속으로부터의 울부짖음]으로 생겼습니다. 현행 평화헌법은 앞으로 일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는 되지 않다/안하겠다는, 영원히 세계에 맹세한 부전·비전의 약속 증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현평화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전후 70 년에 즈음하여, 다음 다섯 가지를

아베 수상에게 긴급 요청합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을 다할 것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해·우호로 향하는 주춧돌이 될 일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들의 [전후 70 년 시민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아베 수상에 대한 긴급 요청>

1. 아베 수상이 8 월에 표명할 [전후 70 년 수상 담화]는, 가해의 역사를 사실로 올바르게 인식하여,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부분을 계승한 담화로 할 것

1995 년 8 월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국책을 잘못하여], [식민지 지배와 침략],[통절한 반성],[마음 속으로부터의 사과]등의 말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전후 70 년의 고비에 나올 수상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역사인식을 계승한 것으로 할 것.

2.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침략의 정의를 인정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침략전쟁이었던 다시 표명할 것

아베 수상은 2013년 4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과 관련해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하지 않고 있다.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의해 다르다]고 말해서 동년 10 월 국회 질문 주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논이 행해지고 있으며 확립된 정의를 포함하여 대답할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침략의 정의는, 1928 년에 체결된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부전 조약), 일본 정부도 지지한 1974 년 유엔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3.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배상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 개인에로의 국가 배상은, 2001 년 4 월 개최된 [인종주의에 반대할 세계 회의](더번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 계획], 및 2005 년 12 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기본적인 원칙 및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

4. 일조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조속히 일조 국교 회복의 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

2014 년 5 월 스톡홀름 합의에 있는 구체적 조치의 실행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2002 년 9 월의 [일조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조속히 국교 정상화 교섭을 진행시켜, 국교 회복을 실현시킬 것.

5. 군사력에 의하지 않는 인근 여러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쌓는 노력을 할 것

아베 정권에 의한 남서제도에로의 자위대 배치 강화나, 오키나와・나고시(名護市) 헤노코(辺野古)의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적극적 평화주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헌법 위반인 안전보장 법제정비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헤노코의 새 기지 건설이나, 남서제도에로의 자위대 배치・증강을 그만두고, 헌법의 평화주의를 살리는 외교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2015 년 6 월 28 일

[전후 70 년 시민 선언・아이치]시민 유지 일동

◆ 찬동할 방법

[전후 70 년 시민 선언 & 긴급 요청]에 찬동 해 주시는 분은, 성함(일본식 가나읽기를 붙여), 이름의 공표 가부를 기입하여, 이하 메일, 팩스, 우편등으로 보내 주세요.

또는 HP (http://70_sengen.iinaa.net/)의 찬동 양식에서도 직접 찬동할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일본식 가나읽기)

공표 가 부

◆ 모집 기간: 7 월 1 일 (화) ~ 7 월 25 일 (토) 마감 엄수

◆ 받는 곳

Fax: 0561-73-3423

메일: ikezumi@mtb.biglobe.ne.jp

우편: (〒)470-0131 愛知県日進市岩崎町竹ノ山 149-549 池住気付

(우)470-0131 아이치현 닛신시 이와사키초 다케노야마 149-549 이케즈미방

[전후 70 년 시민 선언・아이치]사무국

◆ 찬동비(임의)

1 구 / 1, 000 엔

송금 우체국 계좌 번호: 00890-1-169730

가입자 이름: [한국 병합 100 년] 도카이(東海)행동

※ 통신란에 선언 운동 찬동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 선언문 및 긴급 요청은, 아베 수상 앞으로 제출합니다.

※ 찬동자의 성함은 홈 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 선언문은, 무라야마 수상 이후 역대 수상들과 중참 양의원 의장, 정당/정치단체에 송부합니다. 또 영어로 번역하여, 중국, 한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등 관계국가들 대사관에도 송부하겠습니다.